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3.31(목) 15:00 이후	배포	2016.3.31(목)
책임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용호 (02-2156-9750)	담당자	신상훈 서기관 (02-2156-9764)	

**제 목 : 미래 新성장을 보다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한
'정책금융'의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**

- 금융현장에서 新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선 추진
 - 5개 정책금융기관이 「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」를 4월 중 구성하고, 新성장 산업에 대한 상시 지원을 위한 「新성장 정책금융센터」를 개설
- 「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」는 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 **全** 과정을 검토하여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
 - ① 산업계·연구원 등 수요자와 **공동 MOU 체결 등 유기적 협업체계** 구축
 - ② 新성장 트렌드에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**新성장 공동 기준 마련**
 - ③ 新성장에 적합한 심사모형을 확대하고 **자금 집행 관행**을 개선
- 아울러, 산업·문화·금융 전문가들로 「新성장지원 점검단」을 구성하여 **일자리 창출, 수요자 만족도** 등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추진할 계획

□ 금융위원회는 '16.3.24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(위원장 : 장범식) 및 '16.3.31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'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'을 발표하였음

○ 금번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개혁 과제로 정책금융이 미래 新성장에 대해 보다 적재적소 지원을 위한 것임

I. 추진배경

□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新성장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

○ 이에 정부는 **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新성장 산업(이하 '新성장')에 대해 금년 중 정책금융 80조원 이상**을 지원키로 한 바 있음

* 금융위 등 6개 부처 업무보고(1.18일) : 창조경제,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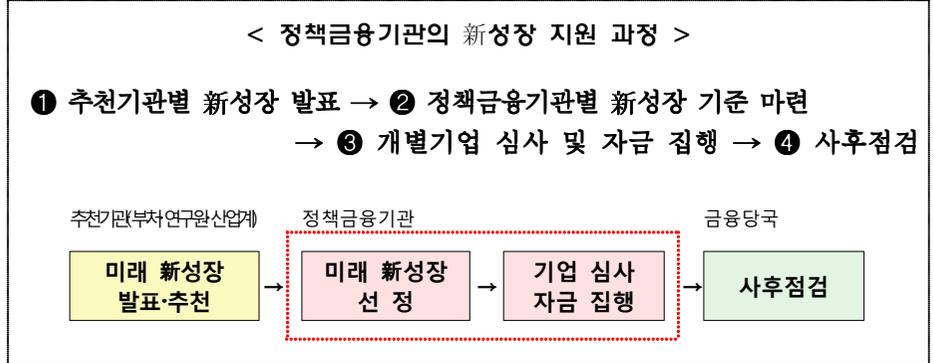
□ 다만,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, 기존 인식과 관행에 묶여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

○ 특히, 정책금융의 新성장 지원을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까지 확대할 필요

※ 대통령께서는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,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줄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

(16.1.21 경제분야 업무보고)

⇒ 정책금융기관들은 新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**정책금융의 全 과정**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



II.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개선 방향



1 미래 新성장 추천 체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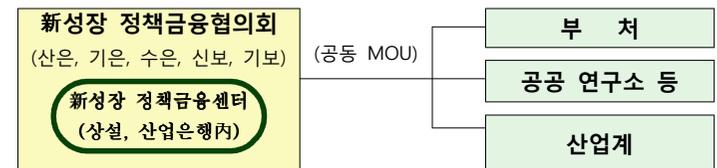
(1) 현 황 : 추천기관과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업 미흡

- 산업부·미래부 등 각 부처·연구원(이하 '추천기관')은 정책목적에 맞춰 新성장을 발표하고 있으나, **정책금융기관에 공식 추천하는 체계**는 부재
- 또한, 추천기관과 개별 MOU 등을 통해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, **MOU 체결 후 사후관리도 미흡**

산업부	5대 유망신산업('16), 13대 산업엔진('14), 핵심부품·소재산업 등
미래부	19대 미래성장동력('15), 과학기술분류체계(과학기술기본법)
기재부	7대 유망서비스업('14), 기술집약·원천기술·신성장동력(조특법)
문광부	문화콘텐츠 산업(문화산업진흥기본법) 등

(2) 개선방향 : 「정책금융협의회」를 구성하고 추천기관과 협업체계 구축

- 新성장에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로 「**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**」(가칭)를 구성하여 **공동 대응**
 - * 정책금융협의회 :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신용정보원(TDB)의 임원급으로 구성 필요시 기타 정책금융기관, TCB, 산업·금융전문가도 참여
 - 「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」의 업무를 지원하고, 新성장 산업에 대한 상시 지원을 위해 「**新성장 정책금융센터**」(가칭)도 설치
 - * 新성장 정책금융센터(상설, 산은내 설치) :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
- 「**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**」가 금융지원시 적용할 新성장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
 - 수요자인 추천기관과 공동 MOU 체결 등 **협업체계를 구축**



2 미래 新성장 선정 기준 개선

(1) 현 황 : 개별적·자의적 적용 가능성

- 정책금융기관이 추천기관의 新성장 기준을 토대로 제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, **시장과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**
- 新성장 기준 적용시 심사담당자의 新성장에 대한 이해도에 크게 의존하고, 자의성이 발생할 소지

※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 : 히트펌프(heat pump)

히트펌프 제조업체가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하였으나, 新성장 기준에 반영이 안 되어 초기에 일반자금을 지원하였으나, 추후 13대·19대 新성장 산업에 추가됨에 따라 新성장 자금으로 전환하여 우대 지원

(2) 개선방향 : 新성장 공동 기준을 마련

- 정책금융협의회는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직원들이 新성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활용할 **‘공동 新성장 선정기준’**을 마련
- ① **추천기관이 발표하는 新성장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**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
- ② 추천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**시장수요와 기술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일반 기준**도 마련

미래 新성장 기준	주요 新성장 기준 항목(예시)	
	추천기준	① 추천기관별 新성장 산업 ② 新성장 기술·품목 ③ 新성장 유망기업 등
	일반 기준	① 시장성장성 ② 일자리창출 능력 ③ 글로벌 진출도 등 ① 산업간 융합정도 ② 업종별 융합 기여도 ③ 전후방효과 등 ① R&D 투자 ② 특허 보유 수 ③ 법·인프라 구축도 등

- 정책금융협의회가 공동 新성장 기준을 신속·주기적으로 업데이트
- 추천기관과 협업하여 **‘표준산업분류와 新성장산업간 연계표’** 마련 등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

3 기업 심사 및 자금 집행 관행 개선

(1) 현 황 :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

- 정책금융기관의 新성장 모형이 전산업·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어서 **분야별·업종별 세분화된 특화모형 개발이 아직 미흡**
- 제조업에 치중한 자금집행의 관행과 인식 등으로 新성장 분야의 자금 지원에서 제조업(60.3%)이 높은 비중

< 산업별 GDP 비중¹⁾ > < 산업별 은행권 자금조달²⁾ > < 정책금융 新성장 지원³⁾ >



1) GDP('15.3분기) 2)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('15.3분기) 3) '16년 정책금융기관 新성장 지원 추정

(2) 개선방향 : 新성장 모형을 확대하고, 업종간 지원격차를 완화

- 자금회수 가능성 등 新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**‘新성장 평가모형’**을 업종·분야별로 확대·구축

* 업종별 세분화 : 1차산업(제조업 중심) 모형 → 지식서비스업·융합 → 일반서비스업

- 제조업과 서비스업·융합산업간 지원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**자금 집행의 관행을 개선**
-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新성장 산업에 **운영자금 지원이 확대**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新성장 특화 상품을 적극 개발

* 例 : ① 현행 新성장 특화상품(문화안성보증, IP 담보대출)을 재점검하고 상품간 연계·보완 ② 추천기관과 연계하여 R&D 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 상품 마련

- 공급목표, 사후손실을 중심의 **핵심성과지표(KPI)**를 新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, 정책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**교육프로그램을 강화**

4 사후점검 체계 개선

(1) 현 황 : 양적 공급실적 위주로 점검

- 업무계획에 공급목표를 부여하고, **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** 등을 통해 실적 점검 중
 - **공급실적 중심으로 평가**하고, 일자리 창출효과, 성장성, 수요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에 대한 평가는 미흡

(2) 개선방향 : 질적평가 및 장기효과 분석을 실시

-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위해 「**미래 新성장지원 점검단**」을 구성하고, 新성장 지원 실적과 체계개선 현황을 점검
 - * 구성 : 금융위(주관), 산업·문화·금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
 - 분기별로 지원실적을 점검하고, 매년 수요자를 대상으로 **만족도 평가(FGI 분석)**를 실시
 - 일정 시차를 두고 **일자리·부가가치 창출효과** 등 장기효과 분석을 추진

Ⅲ. 향후 일정

- '16.4월 중 정책금융협의회와 '新성장지원점검단'을 구성하여 추진

주요내용	일정	추진체계
① 추진 및 협업 체계 구축	'16.2분기	
② 미래 新성장 공동기준 마련		
1) 1차 공동기준 마련	'16.2분기	정책금융협의회
2) 공동기준의 지속 업데이트	연 중	
3) 新산업-표준산업분류간 연계표 마련	연 중	미래부/산업부 등
③ 미래 新성장 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		
1) 1차 공동모형 마련	'16.3분기	정책금융협의회
2) 집행 관행 개선	연 중	
④ 사후점검		
1) 월별 新성장 지원실적 점검	연 중	新성장지원점검단
2) 정책금융 효과성 점검 및 수요자 만족도	'17년 이후	
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